

전교조가 올바른 교육자치제를 위한 대안을 홍보하고, 기타 교육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자치투쟁을 보여온지 2년이 지났다. 지난날, 정부의 1천5백여 교사를 교탄압으로 끌어내렸으며, 지금도 전교조 탄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탄압도 그들의 교육열기를 식힐수는 없었다. 올해는 교직원노조 부활 30년이 되는해이며, '오늘은 전교조 창립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본보에서는 앞으로 전교조의 대응방안과 활동상황을 선전매체와 역량을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전교조가 지향하는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의 이념과 전체적 역량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교조의 선전활동과 역량을 점검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귀여운 아들, 딸을 맡긴 학부모를 앞에서 땀 흘려왔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는 새로운 교사로서 민족과 역사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이글은 지난 87년 9월27일 민주교육추진 전국 교사협의회 창립선언문의 첫부분이다. 그후 89년 5월28일 교직원노조가 28년만에 다시 부활하였다. 교사들 모두 한결같이 '우리를 믿고 따르는 많은 농마를 거둔 교과서와, 현실로 채울 수 없어 일어났다고 선언한지 이제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간 전교조는 합법성쟁취투쟁과 참교육쟁취투쟁을 벌여오는 동안 각종 홍보 선전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역량을 투자하였다. 이에 결성 2주년을 맞아 전교조신문, 푸른교실, 우리교육, 참교육사상 선전활동을 점검함으로써 전교조 활동의 한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전교조 활동의 선전과 그 필요성

전교조는 꾸준히 현교육제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이에 반해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대안제시에 귀를 기울이지는 커녕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관제교육의 종아였던 대한교직원연합회(이하 교련)이 개정된 전국교직원조합(이하 교조)의 홍보지인 '교조신문'(주간30만부 발행)을 통해 전교조를 비방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이런 불합공세에 의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지위향상과 학급운영의 민주화, 교육자치제의 제정등을 선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전교조합법성쟁취와 1천7백여 해직교사의 복직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간 전교조의 선전활동은 합법성쟁취와 해직교사복직투쟁의 최선봉에 서있다고 하겠으며, 40만 교직원과 국민에 대한 선전에 치중하였다.

II. 선전매체와 수의 사업

전교조신문 지난 87년 10월1일 '전국교사신문'이라는 제호로 발행되기 시작한 전교조신문은 매달 1, 11, 21일 발행되어 5월21일 현재 제 75호까지 발행되었다. 전교조신문은 89년 9월27일 전교조결성과 때를 같이하여 현재 제호를 변경하였으며, 현재 전교조편집부내 신문국에서 편집장과 10명의 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주제기자와 통신원을 합쳐서 40여명이 신문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철국(전자양교 교사·39)편집장은 "순보로 제작되는 전교조신문의 구독대상이 학생들이 아닌 현직교사, 학부모, 대학생, 일반시민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배포당 역시 각 지회를 통한 지역단위 배포와 발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용 또한 심층적 특별기사와 각 민주단체와의 연대투쟁기사를 대외적 특집·기획기사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독자층을 넓히기 위해 한 달에 2백원의 우편료만 내면 직

접 우송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전교조신문의 선전역량을 평가한다면 우선, 이전까지 교육부가 내놓은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내리지 못했던 것에 반해 파행적인 교육관계정책을 비판하고 사립학교법등 교육악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선전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위주 및 죽어가는 교육현실을 고발하는 것 뿐 아니라 교육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각 시기마다 적절히 제시할 수 있었던 점도 이 신문의 중요한 역할로 인정받고 있다.

출판국 전교조 출판국은 독립된 출판사로 존재하지 않는다. 전교조 출판국은 독

자출판국인 '우리교육'이 통권 제15호를 발행했으며 국민학생을 위한 '우리 아이들'이라는 소책자가 초등위원회 주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교과위원회에서 '더불어 사는 이

진실된 교육 결코 '죄'일수 없다

창립 2주년 맞은 전교조의 임무와 활동방향

지난 89년 교사대중들은 5공 광우학살을 방불케하는 교육대학살의 광란적 탄압을 뚫고 전국교사들의 계급적 단결의 구심인 교직원노동조합을 건설하였다. 전교조의 결성은 그 자체가 파소권력과 독점자본의 교육을 통한 노동 지배의 허구적대우를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형제화시키는 패거였으며 지난 전국교사협의회 당시의 정권의 개량과 분열의 음모와 법적제약을 뚫어버린 모범적 투쟁이었다.

수없는 담과 눈물과 죽음으로 얼룩진 상처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조직대중의 힘찬 투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대중교사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전교조는 이과정에서 교사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조직체계 또한 지배집단의 어떠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고 강력한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일조직으로 구축하였다. 전교조는 교사대중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으로서, 교사대중들의 계급적 단결의 구심으로서 40만 교직원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강력한 무기이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운동의 기본동력의 하나로 교육운동의 중심축이며 교육정책의 대안력으로서 해당시기 주요한 교육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와 함께 교사대중역량에 기반한 교육주체들의 총단결투쟁을 적극조

단결을 이루고, 진정한 민주정부수립을 향한 민족민주운동의 정치적, 조직적구심을 강화해야 할 임무를 안고 있다.

이제 전교조는 89년도의 조직건설과 복원기를 거쳐 90년에도 다양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전진을 계속하여 왔으며 합법성쟁취를 향해 91년 전교조결성 2주년을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특히 현하의 정치정세는 전교조의 당면과제인 합법성쟁취와 전교조건설의 최고 목표인 민족민주인간교육(참교육)의 실현이 민주정부수립이라는 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과제와 결부되어 있음으로 하여 전교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던져 주고 있다.

이는 최근 고 강경대열사의 폭력적인 사건을 계기로 6공 정권



전교조 창립 2주년 기념식에서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외치는 교사대중들

안 연구,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발표회를 선전해오면서 다른 운동세력과의 연대사업까지 그 발을 넓혔다. 전교조의 현재 선전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각각의 선전매체는 그 독자성에 따라 독자적인 기획과 편집방향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전교조신문과 푸른교실의 경우 각각의 독자층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으며 서로의 영역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전교조선전은 궁극적으로 한국교육에 대한 전교조의 총체적 문제제기를 통해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제기하였으며, 모든 교육주체들의 교육운동역량 결집에 기여했다. 또한 전교조를 확고한 정책대안자로 자리매김하였고, 교직원 노조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적인 노동운동과 민족·민주운동의 폭을 확대시켰다 할 수 있다.

(이지환 기자)

“범대위”연대투쟁으로 민주정부건설 참여 계획 교사 시국선언 통한 정권 퇴진투쟁 동참해

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선전적 교사대중의 시국선언투쟁을 통해 정치적 진출을 가시화시킴으로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권력에 미치는 부담이 크고 학생을 가르치는 전문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실력과 정치적 영향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들의 시국선언과 맞물려 현재 노정권 퇴진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민주세력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켜내고 생산적노동자, 농민, 도시영세민등 아직 폭발적으로는 가시화되지 않은 기층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촉진시키는 선도적역할을 하였다.

한편 향후 반전된 정치정세에서 기층대중들의 절실한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여 총체적인 민주대개혁 요구투쟁으로 전면화하고 기층조직대중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노정권퇴진투쟁전선을 강화시키는 관건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교조의 투쟁방향은 현재의 시국선언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학교내의 민주화투쟁의 대중적 교두보를 더욱 튼튼히 구축하면서 교육부문의 민주대개혁 요구로서 '교사의 노동3권'의 보장과 전교조인정 및 해직교사의 전원복직, '시국선언탄압과 관련하여 교사의 정치활동의 완전한 보장', '교사, 학생, 학부모등 교육주체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완전한 교육자치의 전면실시', '전교조탄압을 합리화하고 교사대중들을 기반하는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의 즉각 철폐'등 교육악법철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국적인 정치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또한 가시화되고 있는 개량책과 민중운동탄압책등을 분쇄하고 친미파쇼 노태우정권의 완전한 타도를 위해 조직대중 뿐만 아니라 30만 교사대중들에 대한 내부의 정치사업을 획기적으로 강화, 교사대중들의 정치의식을 투쟁의 과정속에서 일거에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전교조의 중요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현재 민족민주진영과 보수야당의 정치연합은 현단계에서 민족민주진영의 주도아래 지난 시기 '비상시국회의'에서 '범국민대회의'로 한단계 발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바,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철저히 폭로하여 보수야당의 영향력에 있는 국민대중들을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로 입입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범국민대회의'를 향후 민주연합정부건설을 위한 정치적 구심점으로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범국민대회의'가 주도하는 제반 연대투쟁에 교사들의 대중적 참여를 이루어내는 한편, 그 투쟁의 성과를 기층대중이 중심이 된 민족민주진영의 통일전선적인 국민연합의 조직력의 강화로 귀결시키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신설등 지도력과 실무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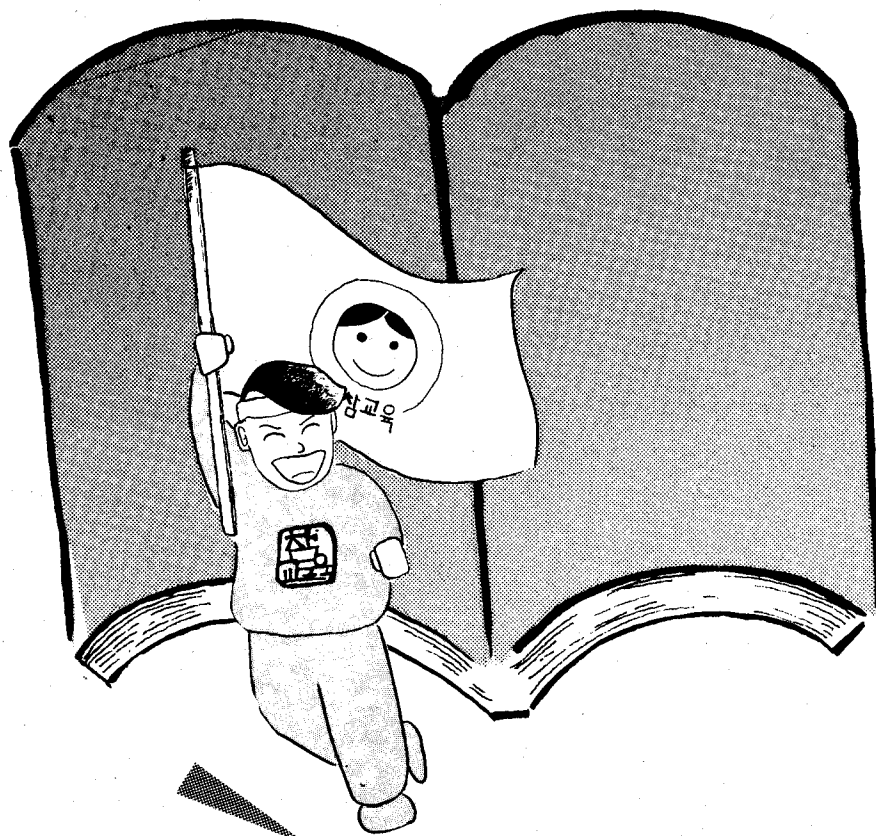
한 상 훈
(전교조 기획국장)

이렇게 큰 교과서가 또 있을까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 2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권의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낫 곳이 휘날리고 있는 저 깃발아래 오늘날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을 향한 교직원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를 외는 교사리슨에서 내일의 주인이기 위해 애쓰는 고등학생의 억센손까지 전교조는 참교육을 내밀어 왔습니다. 자그마한 교과서가 아니라 참교육이 당당히 찍혀 있는 큼직한 교과서를 들고 오늘날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에서 만난 청년학도의 모태는 참교육이 필요함입니다. 입시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해 바둥거리고 급기야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모습을 해맑은 웃음 가득한 참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부단없이 전진하는 그 얼굴에 내일이 있습니다.



민족민주인간화

전국교사대회
5월26일 서울여의도광장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